



논개고을 푸른장수



탄신 427주년 · 제34회 군민의 날

# 의암 주논개 대축제

■ 기간 : 2001. 10. 18(목)~10. 21(일)4일간

■ 장소 : 의암공원. 군내일원

## The Euiam Ju Nongae Festival

- Memorial of her 427th birth



■ 주최 : (사)의암 주논개정신선양회, 장수군

■ 후원 : 전라북도,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 CBS,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주일보, 전북매일, 새전북신문



##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봄, 장수현감 최경회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회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회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회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회의 부실이 됨.  
최경회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 1592년(19세) 최경회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농개고을 푸른장수

## 郡政方針

### 活氣차고 內實있는 長水建設

- 1. 自治行政의 生産性 向上
- 1. 山地를 活用한 特化産業 育成
- 1. 所得増大를 위한 地域開發
- 1. 忠節의 高장다운 觀光振興

## 郡民憲章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三節의 빛난 얼을 繼承하고 밝고 맑은 心性으로 山紫水明한 내 고장을 豊饒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 1. 우리 郡民은 自由를 尊重하고 責任과 義務를 다하여 民主文化를 꽃 피운다.
- 2. 우리 郡民은 良心과 信義를 지키고 協同奉仕하며 公共秩序를 生活化 한다.
- 3. 우리 郡民은 勤勉 誠實하며 進取的인 意志로 잘사는 내고장을 開拓한다.
- 4. 우리 郡民은 心身을 鍊磨하여 健全한 趣味와 情緒純化로 幸福한 삶을 영위한다.
- 5. 우리 郡民은 傳統文化를 啓發하고 서로 和合하여 내 故郷 사랑에 앞장선다.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군의 꽃 / 산철쭉





# 장수의 노래

이기반 시  
이준복 곡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훌 러 념 치 - 니



정 답 게 아 - 름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행 복 의 씨 앳 뿌 러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고 - 거 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름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이루세

(후 령)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 의암 주논개님의 유적



◀ 생가지 사적불망비



▲ 논개 성장향수명비



의암사 기념관▶



◀ 단아정



▲ 논개석상



▲ 논개생가



▲ 의랑루



▲ 최경희장군추모비  
의암주논개사적불망비



▲ 의암 주논개 생가지



▲ 의암사



의암 주논개님이 태어나서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 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



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 1574.9.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 살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김풍현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현의 제소로 장수 관아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회 현감이었다. 최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회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현감 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틈틈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 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회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 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 회의 외침 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회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로 2년 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부대를 골(鶻)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회가 이끄는 호남 출신 의병들의 성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회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 바빠진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의암주논개님이 태어나서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여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



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되는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축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축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불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 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 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 의암 주는개 대축제 일정표

구분	오 전	오 후	저 녀
10.18 (목)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속놀이 한마당 : 09:00~15:30</li> <li>· 개회식</li> <li>· 씨름, 협동줄넘기, 고리걸기</li> <li>3절마라톤, 공차고 돌아오기, 투호</li> </ul>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 마당극 『신토비리』 : 16:00~17:20</li> </ul>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놀이 시가행진 : 18:00~18:50</li> <li>전야제 : 19:00~21:00</li> <li>· 의암호 수상 공연</li> <li>· 전야 축하 음악회</li> <li>· 불꽃놀이</li> </ul>
10.19 (금)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개제례 : 09:00</li> <li>기념식 : 10:00</li> <li>마당극 『쪽빛황혼』 : 11:00~12:00</li> </ul>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개 총절무, 경북도립국악단 공연 : 13:00~14:20</li> <li>궁중의상 패션쇼 : 13:00~14:20</li> <li>창작마당극 『논개』 : 16:00~17:20</li> </ul>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축제한마당 : 18:00~19:30</li> </ul>
10.20 (토)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악놀이 : 10:00~12:00</li> </ul>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개선발 : 13:00~16:00</li> <li>민속줄타기 : 16:00~17:30</li> </ul>	(의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민화합한마당 : 18:00~20:20</li> <li>· 군민노래자랑</li> <li>· 초대가수공연</li> <li>· 달집태우기 · 강강수월래</li> </ul>
10.21 (일)	(논개생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안산 등반대회 : 10.21</li> <li>논개추모 일반부 무용대회 : 09:00~19:00</li> <li>논개추모 장사씨름대회(한우고기먹고 도깨비 씨름) : 10:00 ~17:00</li> </ul>		
기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백일장(의암사) : 10.11</li> <li>축구대회(장수고) : 10.19</li> <li>군수배 테니스대회(장수 테니스코트) : 10.20</li> <li>전북 탁구대회(백화여고) : 10.21</li> <li>무진장 게이트볼대회(노하숲 게이트볼장) : 10.18</li> <li>경노잔치(의암사) : 10.19</li> <li>전북궁도대회(벽계정) : 10.20</li> <li>전국 사진촬영대회 : 10.18~10.21</li> </ul>		
부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릭터, 마스크트와 사진찍기</li> <li>특별기획전(사진, 시화, 서예)</li> <li>풍물야시장</li> <li>사과시식</li> <li>전통 저자거리 재현</li> <li>토산품판매</li> <li>품바공연</li> </ul>		





# 식사

오늘은 二德, 三節, 五義의 고장 장수에서 정신적 지주로 숭앙하는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7주가 되는 뜻깊은 날이며 이날을 기리고자 군민의 날로 지정한지 제34회가 되는 날입니다.

또한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하신지 408주년이 되기도합니다.



물과 공기 그리고 흙이 청정하고 비옥하여 하늘에서 선택받은 땅 장수이기에 의암과 같은 만고 충열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런 뜻 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한 축제행사에 바쁘심을 뒤로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서울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여 주신 귀빈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타의 귀감이 되시어 군민의장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행사는 동서화합 차원에서 먼길을 오신 경북도립국악단의 제례 음악 반주에 맞추어 엄숙하게 거행되는 제례봉행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민속경기, 논개선발등 30여개 다채로운 행사가 의암공원을 비롯하여 군내 일원에서 4일간에 걸쳐 군민과 출향인이 한데 어우러져 큰 잔치마당이 펼쳐 질 것입니다. 이 때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화합하면 청정하고 선택받은 내고장 논개골에 밝은 내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암주논개축제와 군민의날 행사에 동참해주신 모든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9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장 명 수



## 기념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장수 군민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원님, 유종근 도지사님, 또한 진해시 김병로 시장님과 김영조 진해시의회 의장님, 멀리 일본에서 오신 양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농심이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친 논개님의 훌륭한 얼을 기리고 군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탄신 427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와 제34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극심한 한해와 수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 군민이 합심하여 금년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대풍을 일구어 낸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공로로 오늘 군민의장을 수상하신 네분께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논개님은 지금부터 약 4백여년 전 우리 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구국의 여신이자 한국 여성의 표상으로 우리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 계승하여야 할 후손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8년부터 창작성인 『충절무』를 통하여 논개님을 춤으로 승화시켰고 99년부터 논개님의 구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논개님 추모 전국 무용대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작년 6월 27일에는 전국 저명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논개님 선양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논개님의 삶과 역사적 현실을 재조명한 『그리운 논개』 창작 음악극을 공연한데 이어, 진주 젊은이들이 논개의 삶을 재조명한 창작마당극 『논개』 공연을 개최하는 등 논개님 알리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립극장 주관으로 창작 창극 『논개』를 서울에서 공연하였고, 논개님 일대기를 “만화”로 엮어 전국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논개님을 전국적인 인물로 각인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논개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논개사를 정립하고 이곳 논개사당과 논개님 생가지가꾸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두 곳 모두 진정 논개님의 충절을 기리는 문화요람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논개님을 호국의 여인으로 승화시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국민 대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군민여러분 !

논개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국가를 구했듯이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현재 우리군이 겪고있는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경주마목장 유치에 위하여 전 군민이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1세기 우리군의 비전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전하며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한 군민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당과 생가를 잇고 지지계곡을 경유하는 관광순환도를 개설하면서 문화예술촌과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11월 15일 개통식을 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우리군을 통과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교통중심지로 부각하게 되고 소방서와 무공해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분명 활기가 넘치는 고을로 탈바꿈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장수사과의 면적을 확대하고 소득금고를 확대 지원함은 물론 새로운 소득작목을 연구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은다면 새천년 장수의 미래는 한층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이 『논개의 고장』 『충절의 고장』 『사과의 고장』으로 우뚝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끝으로 오늘의 축제가 전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지는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고, 멀리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9일

장수군수 김상두



## 축사



끝없이 높아만 가던 가을 하늘이 팔공산 꼭대기에 올라서면 손에 닿을 듯, 장수의 가을은 벌써 깊어진 듯 싶습니다. 육십령 고개 마루며 장안산 기슭 지지계곡도 온통 만산홍엽을 이룬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래로 기개가 높은 충신들이 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충절의 지기를 이 땅에 묻었으며,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목숨을 다바쳐 지키고자 했던 열녀들의 넋이 장수고을 곳곳에 서려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수고을의 영원한 표상이시며 이 나라 역사속의 구국의 화신으로서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논개님을 추모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400여년 세월의 장벽을 허물고 논개님은 우리들 가슴속에 '불멸의 민족혼'의 상징으로서 새롭게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논개님의 영령앞에 삼가 엎드립니다. 의로운 죽음은 영원한 삶이 되어 세세손손 그 정신은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 도도히 흐를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일본총리의 신사 참배나 교과서 왜곡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우리민족을 끊임없이 강탈해온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엽에 벌어지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일본의 망령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실 논개님의 영령에 죄스러움과 함께 일본의 오만을 눌러 이겨낼 것이라는 우리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 드려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이곳 장수 땅은 농토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오랜세월 안분지족의 정신으로 이웃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들의 땅입니다.

하늘과 땅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하여 오랜 세월 지켜온 우리들만의 자랑스러운 숨결과 문화가 있는 고장입니다.

급속히 변모해가는 물질문명의 흐름속에서도 우리는 잃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의 선조로부터 이어 받았으며, 앞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런 문화로서 내려 줄 것입니다.

올해의 이 축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바탕 잔치가 아니라 우리 장수의 화신이신 논개님의 얼과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발현해 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축제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금번의 이 축제를 위해 고생하시는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각종 사회 제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정 세 균



축사



자랑스런 장수군민 여러분!

오늘 유서 깊은 장수 땅에서 의암 주논개님의 우국충정을 추앙하고 아울러 장수군민의 화합단결을 다지는 서른네번째 군민의 날 행사를 갖게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농민들이 몇 갑절 땀흘려 일하고 노력한 보람으로 대풍을 맞이한 가운데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갖게되어 그 감회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장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느 고장보다도 많은 애국지사가 나와 국난을 극복하는데 목숨을 바쳤으며 주논개님은 적장과 함께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꽃다운 청춘을 바쳐 조국수호의 신으로 산화했던 충의를 상징하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 땅은 병화속에서도 왜적조차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는 장수향교를 비롯하여 의암사, 타루비 등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60령의 일화를 간직한 호남과 영남간의 교통의 요지로도 알려진 곳입니다.

이렇듯 자랑스런 고장에 사는 장수군민은 빛나는 조상들의 유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고귀한 유훈을 본받아 더욱 힘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 장수군민 모두가 잘사는 땅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일들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서로들 질서와 친절과 청결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네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전북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민축제가 선열들의 애국심을 재조명하고 신명나는 놀이 속에 군민이 하나되어 번영하는 장수군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1년 10월 19일  
전라북도지사 유 종 근



## 축사



평소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향각지에서 오늘의 행사를 경축해 주시기 위해 우리 고장을 방문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리며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뜻깊은 자리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자랑스런 군민의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으신 내분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장수는 평화롭고 순후한 지역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고,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선현들이 많았으며 효부와 열녀가 많이 배출되어 2덕3절 5의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고장이 낳은 의암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위기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19세의 꽃다운 젊음을 나라위해 바치신 분이기에 우리 군민은 그 분의 탄신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훌륭한 정신을 후대에까지 길이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 논개생가지 정화사업과 사당 성역화사업을 마무리함으로서 장수군의 관광 자원화와 문화유적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가꾸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 모두는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을 승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논개사를 바로 알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매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개님의 정신적 지주 위에 장수군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34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더욱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9일

장수군의회 의장 최 용 득



## 축사

황금물결이 넘실대고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결실을 맺는 좋은 계절을 맞아 탄신 427주년 제34회 군민의날 기념 “의암 주논개 대축제” 행사를 성대히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진왜란시 애국충절의 일념으로 젊음을 나라에 바친 의암 주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본행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해마지 않는 장수군민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자라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 없애는 일과 같다 하겠습니다.

엄연한 역사의 사실 앞에서도 양심의 가책마저 저버리고 조금도 거리낌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작태에 분개하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암 주논개님은 1593년 임진왜란의 위태로운 국난시기에 나라를 구하려고 적장을 꺼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열아홉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침으로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한국여인의 영원한 충절의 표상입니다.

주논개님의 거룩한 정신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희석되고 퇴색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만고에 길이 길이 전해지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장수군민 여러분은 의암 주논개님의 우국충정의 높은 뜻을 받들어 더욱 화합하며 장수군의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축제를 계기로 장수군민의 자긍심이 더한층 높아지고 나아가서는 국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우국충정의 높은 뜻이 함께 심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장수군의 무궁한 번창과 군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허영근



의암 주논개대축제 발자취







의암 주논개대축제 발자취





## 장수의 표상(二德·三節·五義)

### 이덕(二德)



#### ◇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 - 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아버지 군서가 장수현감으로 있을 당시 장수현 수내면 선창리 내아에서 출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 (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예조·병조·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명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읍 방촌공원내)



#### ◇ 정신재 백장(靜慎齋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 - 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字)는 명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源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 술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희등을 배향

####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면 금덕리)



삼절(三節)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의암 주논개(義岩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 (4甲戌)
- 1591.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게야마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岩"이라 새김(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혹석의기 논개생장향수 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가지사적불 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현위치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기록
  - 1621경 어우아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현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97 장수의 표상



▲ 타루공원(천천면 장판리)

◇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핏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현승이 순의리 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 통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

◇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르려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 장수의 표상(二德·三節·五義)

### 오의(五義)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면 죽림리)

#### ◇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源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혜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번암 죽림)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 ◇ 전해산 장군(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번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泓,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1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 정인승 선생 유허비 (계북면 양악리)

#### ◇ 정인승 박사(鄭寅承 博士)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 의병대장 문태서, 박춘실 전적비 (계북면 양악리)

#### ◇ 문태서 장군(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우리고장 관광명소



### ▲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종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억새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와 같다.



### ▲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있다.



### ▲ 방화동가족휴가촌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 ▲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눈썰매장, 물놀이장, 진디광장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 ◀ 토옥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 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 우리고장 명산품



▲ 사 과

장수는 산간 고랭지대로 주야 일교차가 커 사과재배 적지로서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독특한 사과를 생산, 전국제일의 사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오미자



▲ 석 기



▲ 토종돼지



▲ 버 루



한 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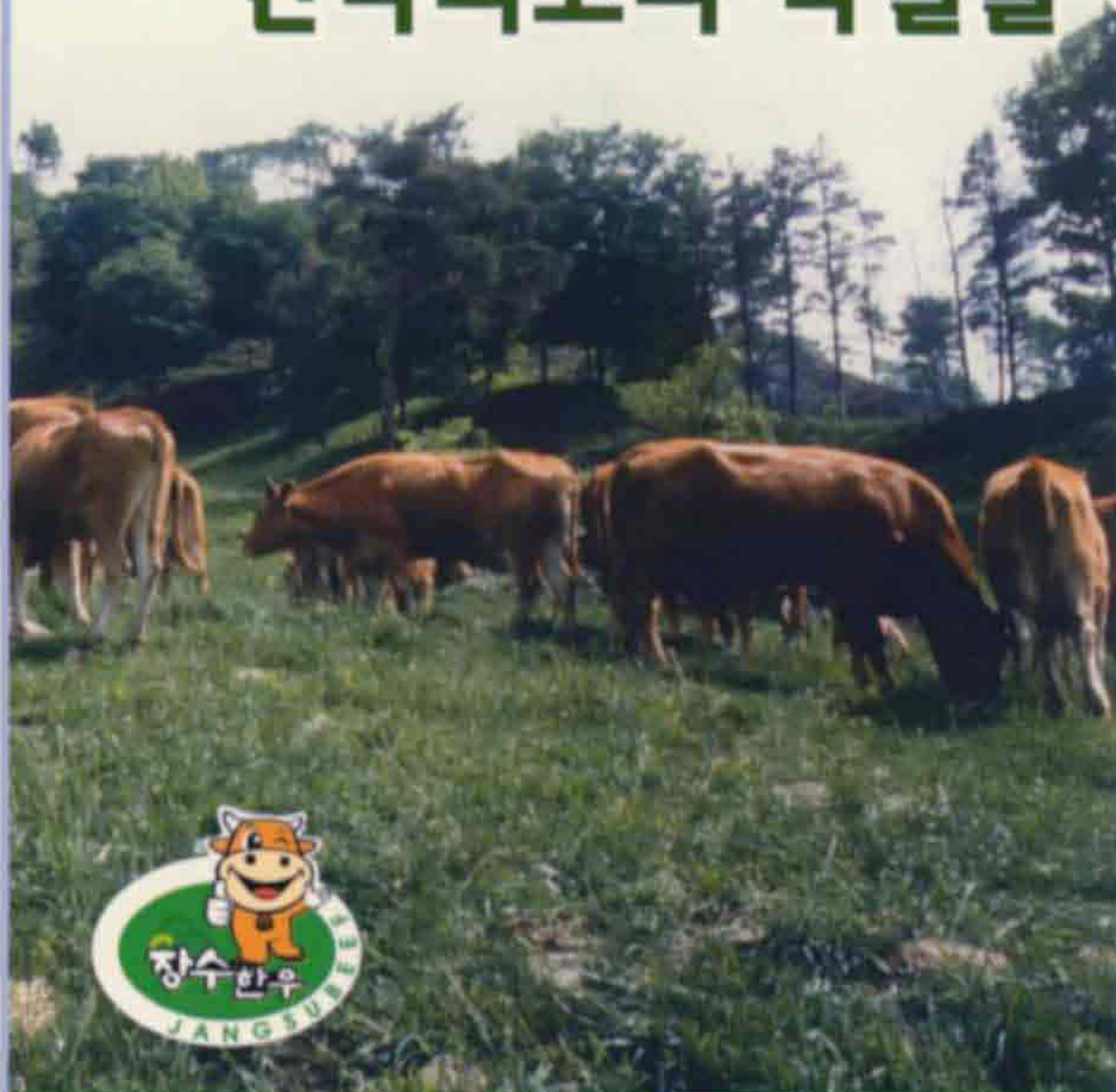
# 농협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건설

“그 중심에 농협이 서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지부장	이희찬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진기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택렬

## “한국최고의 육질을 사랑하는 장수한우”



장수한우 '99년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

'2000년 전국 한우고급육생산 품평회

2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장재영

한국통신 Megapass 초고속 인터넷  
이제 회사를 보고 선택하세요

Let's KT

- 상 품 명**
- Megapass ADSL-Lite
  - Megapass ADSL-Premium
  - Megapass HomeNET

- 월 이 용 료**
- 25,500원
  - 34,000원
  - 기본 단말 2개 42,500원  
(추가 1개당 12,750원)

- 모뎀 임대료**
- 월 3,000원  
(3년 후 무료)

(3년 약정기준, 설치비/부가세 별도)

**가입자 300만 돌파!!**  
가장 많이 선택한 인터넷이 가장 좋은 인터넷!!

**Megapass  
ADSL**

2001년 5월 16일  
한국일보, 전자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16개 일간지



**한국통신 장수전화국**

TEL. 351-0200  
352-0200



상담 문의 국번없이 100번

**농민보호는 우리담배애용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KOREA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장수영업소**

소장 최 학 도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 우진산업 주식회사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316-2  
TEL. (063) 353-0908  
353-1018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진산업

## 활공청년회

### 회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회장 : 문종태  
부회장 : 장영수  
사무국장 : 김종석  
환경보호부장 : 박귀현  
문화체육부장 : 김정수

직전회장 : 황종호  
부회장 : 박태선  
총무부장 : 류도선  
지역사회개발부장 : 최일경  
감사 : 백상현, 강종호



『論介의 愛人이 되어서 그의 廟에』 中에서

韓 龍 雲

날과밤으로 흐르고흐르는 南江은 가지 안습니다  
바람과비에 우두커니서는 矗石樓는 살가튼 光陰을따라서 다름질칩니다  
論介여 나에게 우름과우습을 同時에주는 사랑하는論介여  
그대는 朝鮮의무덤가온대 피엿든 조흔꽃의하나이다 그래서 그향기는  
씩지안는다

나는 詩人으로 그대의愛人이되얏노라

千秋에 죽지안는 論介여

하루도 살수업는 論介여

그대를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질겨우며 얼마나 슬프것는가

나는 우습이제워서 눈물이되고 눈물이제워서 우습이됩니다

容愍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論介여





# The Euiam Ju Nonggae Festival